마스터솔루션의 마스터 되기

(사사기 20:1~48)

24.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25.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팔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6.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벧엘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28.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는지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스터 솔루션의 마스터 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마스터 솔루션의 마스터 되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솔루션인 마스터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스터 솔루션을 실제 삶에서 활용하는 달인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마음의 단계를 통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를 알아봅니다.
'마스터 솔루션'이라는 말을 하면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 말 자체에 기계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답과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기계가 아닌 인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대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마스터 솔루션은 하나님을 구속하고 반드시 해답을 내셔야만 하는 억압 장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은 문제의 해답이 주어지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스터 솔루션으로서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서의 해답을 구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우리의 어떤 원칙으로도 강요해서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답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로서 주어지게 되므로 그 은혜를 구할 때의 우리의 태도는 한가지여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마스터 솔루션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마스터 솔루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비교를 해보면 그 특징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해답을 얻는 방법에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손다이크가 실험을 했는데 참고하면 좋습니다. 창살로 되어있는 상자를 하나 마련해서 그 상자 안에 페달을 장치하고 페달을 밟으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 고양이를 집어넣고 상자 밖에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생선을 둡니다. 그것을 본 고양이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만 창살에 막혀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저런 시도를 해보다가 우연히 페달을 밟고 나오게 되는데 160초가 넘게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양이를 넣자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서 마지막에는 10초도 채 안 돼서 페달을 밟고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행착오설입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반응의 방법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방법으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반면에 전혀 반대의 학습이론을 들고 나온 독일의 심리학자 볼프강 켈러는 통찰학습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침팬지를 방에 가두고 높은 곳에 바나나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침팬지가 올라서면 바나나가 닿을만한 상자를 두세 개 넣어둡니다. 침팬지가 처음에는 바나나를 따기 위해 뛰다가 안 되면 궁리 끝에 상자를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먹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양이가 페달을 밟은 것과는 다르게 침팬지가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사고해서 직관적으로 바나나를 먹기 위해 상자를 쌓아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데 이것이 바로 통찰학습이론입니다. 사람이 해답을 얻을 때에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의 관계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찰함으로 문제의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민은 어떻게 살아야할까요? 인생에서 시행착오는 필수적인 것으로 느낍니다. 우리 스스로도 삶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통찰도 필요한데,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행착오가 우연에 의해서 답을 얻는 것이라면, 통찰은 조건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역학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서 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은 시행착오나 통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마스터 솔루션이 주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현실 생활에서 적용해 나갈 때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절차를 밟아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시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은혜를 기다린다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한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의 비류들이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시체를 열둘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 보내자 그것을 보게 된 이스라엘 전체가 경악하며 분노하여서 미스바에 모이게 되고, 레위인에게서 경위를 듣게 되어 그 비류들을 잡아서 죽이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지 말자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해서 1/10을 모집하자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 중에서 사십만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기브아 비류들을 죽이겠다고 요구하자, 베냐민은 그 요구를 거절하는데 그 비류들이 행한 극악무도한 범죄에 간접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나라 안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민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상대로 의로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3차에 걸쳐 전투를 벌이는데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이만 이천 명의 목숨을 빼앗기며 패배합니다. 분명히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벧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족속이 앞장서라’는 말씀까지 받아서 전쟁을 했는데 패배했습니다. 2차 전투에서도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는 말씀을 받았는데도 만 팔천 명이 또 죽고 패배를 해서 도합 사만 명이 죽었는데 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3차 전투에서 비로소 이겼는데 이 전투를 통해서 베냐민은 완전히 전멸하게 됩니다. 남자 육백 명을 제외하고는 어린애 노인 가축을 포함해서 다 죽고 마는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차 2차 전투와 3차 전투에서 무엇이 다른 가를 보면 오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삶에서 마스터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3차 전투 때의 차이점을 보기 위해 26절을 다시 한 번 읽어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벧엘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라고 하는데 1차 때와 2차 때에도 하나님께 물었지만, 3차 때에는 단순히 물은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에도 단순히 싸우러 갈 것에 대해 물은 것이 아니고 28절에 “…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라고 ‘말리이까’를 붙이는데 이런 차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식’은 싸우는 군인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남녀노소가 다 참여했는데 이것은 삶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마음

에 갖고 있는 소원에 대해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요청의 강도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을 강압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금식하는데 아주 큰 오해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삶을 사는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몰입하고 집중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마음의 관심거리는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인데 밥을 먹지 않는 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베냐민의 문제조차도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몰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주어지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문제의 해답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되는데 이 관계 설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관계에 있는 나를 빼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내 마음을 선점하는 이 세상의 다른 관심사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금식을 통해서 삶을 전폐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사항인 밥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삶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의 등을 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냐민과의 관계나 삶의 문제와의 관계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 어떤 변화가 있고 차이가 있을까요? 베냐민과 나의 관계에서 본다면 나는 베냐민의 악행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고 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면 베냐민 앞에서 의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안에서 보니 내가 베냐민에 대해서 역겨워하는 만큼 내게서도 하나님께서 역겨워할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와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느낀다면 돈이 없어서 고생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고생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병이 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추구하고 문제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문제와 어울리는 못난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베냐민의 기브아 비류들과 같은 길을 가던 자였음을 알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베냐민은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역겨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번제에서 죽는 것입니다. 삶에서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되는 이유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나야 하느냐는 태도로서 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 문제와의 관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릴 때에 보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볼 때에 내 밖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에서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나면 그 다음으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베냐민에게 분노하고 심판하려고 했던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더러운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돈, 건강, 자녀, 친구, 애인, 나라 같은 것들이 내게 안정과 평강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러웠던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발전되다보면 베냐민이 행했던 행동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동일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목제가 뜻하는 것은 그러한 내가 번제를 통해 죽었음으로 이제 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임을 생각하게 될 때에, 앞서서는 하나님께 베냐민에 대한 나의 분노로 베냐민 치러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답을 물었지만, 화목제 이후의 질문은 온전히 베냐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가 없어져야 할 것을 전제하고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있는 중에 괴로웠던 내가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의 과정을 겪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행복해진 상태에서 문제에 대한 나의 통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마음속에서 문제와의 관계를 떠나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세우는 것이고, 그럴 때에 금식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대체되었습니다만 금식기도는 해도 되고 또한 유익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금식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게 주어진 문제나 사람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문제시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의 이유를 삼았기 때문인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기쁨의 이유를 삼겠다고 화목제의 의미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스터 솔루션인 십자가 생활화의 달인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되살아남으로서 마스터 솔루션 활용의 마스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